



“아내를 버려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대통령을 관두겠다!”

선거 때만 되면 여성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합니다.
이번엔 꼭 여성총리를 지명하겠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번에 대통령후보들에게 화를 좀 내셔야 합니다.
여성을 표로만 보는 사람과 진심으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가려서 이준마들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 우리 여성편이겠습니까?
선거때만 여성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내를 위해서라면 대통령도 관두겠다는 사람입니까?

남자들의 대한민국은 많이 봐왔습니다.
여자들의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당당한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새천년민주당
www.minjoo.or.kr

당당한 여자들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보육료 50% 국가지원, 방과후 보육확대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역구 30%,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 ●호주제 폐지로 양성 평등한 가족제도 실현

*본 광고는 국민이 보내주시는 성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40B